

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1월 15일, 김홍구 의원 외 21명

나. 회부일자: 2024년 1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4년 1월 25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홍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작은학교 장점과 지역 특성을 살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제정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○ 작은학교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감의 책무(안 제3조)

-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작은학교 지원사업 및 지원 방법(안 제5조 ~ 제6조)
- 교직원 배치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(안 제7조 ~ 제8조)
-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, 경상북도,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경형)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작은학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먼저 안 제1조는 작은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.
-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, 지원사업, 지원 방법, 교직원 배치 등을 규정함.
-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생 전입 확대 방안과 각급 학교, 경상북도, 작은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이후 41년간 초등학교 677개, 중학교 73개, 고등학교 34개 등 784개가 폐지되었으며, 저

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.

- 도내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는 342곳으로 전체 939개교의 36.4%로 초등학교 229개교(46.4%), 중학교 102개교(38.9%), 고등학교 11개교(6%) 순이며, 청송군이 72.7%로 가장 높고 성주(68%), 봉화(65.4%), 고령(64.7%) 등 12개 시·군의 작은 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으며, 초등학교는 전체 494개교 가운데 229개교가 작은 학교로 46.4%에 달하며 중·고등학교까지 작은 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,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, 작은학교의 장점과 지역 특성을 살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- 다만, 인구소멸과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없애기보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업이므로, 작은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유출을 막아 학교 운영을 정상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타시도 조례제정 현황 : 12곳(강원, 경기, 경남, 광주, 대전, 부산, 세종, 울산, 전남, 전북, 충남, 충북)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